experience
Life As Mission
155th. Spring. 2025
당신의 삶,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인터서브 프렌즈

"Do the G!" 선한 일을 하는 두더지 _ 류정혜 펠로우

순종과 믿음의 여정, 그리고 새로운 시작
_ 비조이 코쉬 국제 대표 퇴임 인사

인터서브 스토리 : 또 한 번의 새로운 발걸음 _ 주경배 선교사

Interserve

Life As Mission

하나님의 선교를 경험하는 2025 상반기

4월
매주 월, 5주

ASME 스쿨 4월 1일~29일(월), 저녁 8시

하나님 나라 복음과 삶으로 드러나는 선교를 이해하고, 일상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합니다.

5월
매주 1회

선교적 숲 매주 1회, 약 7주, 온라인 모임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숲지기와 함께 자신의 은사와 소명을 배우고 도전하는 선교적 실천 공동체

6월
5일~8일

BAM 컨퍼런스

비즈니스를 하는 선교사와 펠로우가 네트워킹하고 사역적 발전과 동역의 기회를 모색합니다.

6월
21일 (토)

인터서브 총회

인터서브 공동체가 함께 모여 2024년을 돌아보고, 2025년 인터서브가 나아갈 방향성과 목표를 나눕니다.

참여 방법: 기간 내 인터서브 홈페이지 공지

문의: interservekorea@gmail.com

contents

Value
변혁의 공동체
Transforming Community

04 **우린 이미 연결되었다** _ 공갈렙 대표
09 **Do the G! 선한 일을 하는 두더지** _ 류정혜 펠로우

People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
Interserving People

14 **퇴임 인사 : 순종과 믿음의 여정, 그리고 새로운 시작**
_ 비조이 코쉬 국제 대표
16 **미션얼 패밀리 : 박영훈, 범민아 선교사 /**
이야기 선교사 / 김보은 선교사

Ministry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All Things To All Peoples

19 **인터서브 스토리 : 또 한 번의 새로운 발걸음** _ 주경배 선교사
24 **마음을 잇다, 사랑을 나누다 :** 인터서브 공동체 소식

*Creation Care
인터서브 프렌즈는 친환경적인 용지로 제작되었습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분리수거 시 스테플러 심을 제거해주세요.

인터서브 칼럼

우린 이미 연결되었다

공갈렙 대표

자연이 가르쳐 주는 연결

12월 크리스마스 예배를 마치고 오랜만에 온가족이 2박3일의 안면도자연휴양림으로 가족여행을 떠났다. 그곳에 있는 소나무는 질이 좋아 조선시대 궁궐을 만드는데 사용될 정도였으며, 현재 특정 지역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1970년대 초반 간척사업을 통해 안면도의 지형이 많이 바뀌었다고 한다. 바닷물

이 가득했던 곳을 흙으로 메우자, 소금기가 제거되고 식물이 자라기 시작했다. 그 결과, 간척지에서 자란 쌀은 특상미로 인정받을 만큼 품질이 뛰어나게 되었다. 여러 식물과 곤충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땅이 된 그곳에서 가족이 보낸 3일은 참 행복했다. 자연과 인간이 가까워지는 기회라서 그런 걸까? 도심의 복잡함을 떠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여유롭게 걸어도 어색하지 않은 환경 때문일까?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연말을 정리하고 새해를 계획하는 시간이어서일까? 내가 땅과 연결되고, 가족 구성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행복과 감사를 느낀 시간이었다.

인도에서 다시 깨닫는 '함께'하는 하나님의 선교

2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 동안 인도 중부지방의 뿌네와 뭄바이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다. 먼저는 그곳에서 사역하는 인터서브 선교사들을 만나 삶과 사역을 보며 격려하고 교제했고, 뿌네에 있는 인도 인터서브 사무실을 방문하여 인도인 인터서브 선교사들과 몇 년만에 해후하는 시간도 가졌다. 뿌네한인교회에서의 설교와 교제를 통해 디아스포라 한인의 선교 역할을 도전하기도 했다. 그리고, 뭄바이로 넘어가 한인 선교사들의 선교전략회의에 참석하여 발제와 토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총걸음으로 장소를 세번이나 이동하며 짧은 일정을 소화해야 했지만 밤 늦게까지 이어지는 대화와 만나는 이들마다 전해주는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를 통해 받은 기쁨과 감격이 지금까지 선명하게 남아있다.

25년 전, 20대 청년 시절에 인도 선교를 시작했다. 그러나 2021년부터 인도 사역을 정리하고 한국에서 지내면서, 약 4년 동안 일부러 인도를 방문하지 않았다. 너무 그리운 곳이기에, 방문할 때마다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번 방문은 그토록 그리던 나라였기에 다른 곳을 방문한 것보다 감흥이 남달랐다. 근데 그런 특별한 감정을 여기서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한인 선교사, 현지인 선교사, 한인 디아스포라 성도 등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을 만나면서 내 자신과 공동체에 주는 인사이트 한 가지를 나누고 싶다. 그것은 바로 '함께(together)'라는 것이다. 이 '함께'라는 주제를 세분하여 살펴본다.

첫째, 우리는 혼자 선교할 수 없다. 인터서브는 1852년부터 인도 선교를 시작

했다. 현재는 1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인도 전역에서 각기 다양한 사역으로 섬기고 있다. 고무적인 것은 약 70%의 선교사가 인도인 선교사라는 점이다. 선교사와 선교대상과의 괴리감이 적고, 현지화되어 사역한다는 장점이 있다. 한인 선교사가 인도선교를 시작한 지는 1982년부터니까 43년쯤 지났다. 현재 30년 이상 인도에서 사역한 선배 선교사들은, 현지 교회와 교단, 선교단체와 연합하여 현지화된 선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한인 선교사 전략회의에서도 이 방향이 강조되었고, 선교사들을 격려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나의 발제, '세계기독교시대의 인도선교의 한 전망'도 현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 매우 반가웠다. 인도, 네팔, 베트남, 한국으로 흩어져 있던 선교 리더들이 첫날 각기 다른 발제 시간에 하나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인도교회와 '함께' 선교하는 것이 미래선교의 방향이라는 것이다. 맞다. 선교사가 혼자 선교하는 시대는 지났다.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선교하는 시대다.

둘째, 우리는 각자 보냄 받은 영역에서 선교사로 살아간다. 인도 전역에서 각기 다른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의 발제, 인터서브 선교사들의 총체적 선교, 대부분 상사 주재원들인 뿌네한인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교 영역 등을 보면서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각자의 부르심과 보내심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뿌네한인교회에서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을 전하며, 인도에 주재원으로 온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분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한 것임을 도전했다. 3~4년 인도에 머물다 한국으로 돌아갈 지라도, 있는 동안 하나님의 보내심이라는 관점에서 그들은 열방의 선교사인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인터서브가 추구하는 하나님 중심적 총체선교가 늘 감사하다. 그분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를 빠짐없이 피조세계에 선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함께 성장한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유기성을 가진 공동체이다. 교회의 일원이 성장하면 그 영향으로 전체 공동체가 같이 성장한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런 유기적 공동체로 자라간다.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종의 영성을 통해 다시 한번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삼위일체 공동체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동역을 통해 선교의 현장에서 발현되는 것이 늘 신기하고 놀라울 따름이다. 이제 동역은 옵션이 아니라 하나님나라 공동체의 DNA로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일찍부터 연합사역에 힘을 쏟았던 인터서브의 선교 역사를 반

추하며 다시 한번 함께 성장하는 동역의 역사가 우리의 선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길 소망한다.

우리는 유기체인가?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함께 성장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인터서브 공동체도 이러한 유기성을 지니고 있을까? 하나님나라의 가치로 모인 공동체이자, 서로 연결되어 성장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하나님나라를 파괴하려는 악한 세력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탄의 전략은 우리를 분열시키고, 함께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성장하는 유기적 공동체로서 더욱 성숙한 선교로 나아가야 한다.

이번 인도 방문은 한상욱 펠로우와 함께 했다. 현장의 선교사들을 만나고 호흡하면서 본인이 선교에 대한 배움과 성장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다. 더 나아가 인터서브 선교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경험하셨다.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는 한 교회의 장로로, 강점 코치로, 인터서브 인사위원장으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역할 수 있는 실천사항을 만드셨다. 이번 함께함이 그분께는 기쁨이요, 성장이었다. 이와 같이 작년 하반기에 일본에 방문

▲ 이번 여정을 함께한 한상욱 펠로우(왼쪽에서 두번째)
◀ 진료 중인 선교사님

▲ 인터서브 인도 오피스 방문

하여 선교사를 격려하고 온 펠로우들, 말레이시아와 라오스, 미얀마, 파키스탄 등을 방문하고 돌아온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있다. 이분들도 비슷한 동역의 은혜를 경험했다. 앞으로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와 펠로우가 만나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지려 한다.

우리는 유기체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 연결을 더 강화하여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더 많은 공동체 일원이, 한국교회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로 연결되기를 기도한다.

Do the G!

선한 일을 하는 두더지

류정혜 펠로우

"안녕하세요 류정혜 펠로우님, 인터서브를 이해하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펠로우들의 모임에 초청하기 위해 연락을 드렸습니다.

30대 – 40대 펠로우 대상으로 비슷한 연령대에서 선교적 삶에 대한 고민과 나아가야 할 방향들, 인터서브를 알고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2022년 가을, 인터서브 펠로우로 초청받아 기쁜 마음으로 함께하며 귀한 분들께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러던 중, 23년 10월 어떤 선교적 삶을 보고 듣게 될까 설레는 또 다른 초청장을 받았다.

선교적 삶을 향한 여정 : 두더지, Do the Good

"함께 모여 무엇을 할까?" 이러한 근원적인 질문을 안고 시작된 우리의 첫모임은, '두더지'라는 이름으로 먼저 모임의 정체성을 정의했다. 정해진 틀이 없었지만, 'Do The Good' 이라는 모토 아래 각자의 삶에서 선교적 삶을 실천하고, 인터서브 펠로우들이 함께 합력해 선을 이룰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보는 것이다.

가정과 일터에서 가장 치열한 시기를 보내야 하는 30~40대들이기에 서로의 삶에 부담되지 않고, 언제든지 인터서브 펠로우라면 누구나 부담 없이 아무 때나 들어와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모임의 시작이다.

첫 모임의 인원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욱 깊이 있는 나눔과 실천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 이 모임은 단순한 친목을 넘어, 함께 선한 가치를 만들어가는 진정성 있는 공동체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며, 세상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

첫 모임의 깊은 울림

'두더지'모임의 첫걸음은 인터서브 본부에서 진솔한 나눔으로 시작되었다. 참석자들은 각자의 삶에서 실천하고 있는 선교적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그 과정에서 마주한 도전과 은혜의 순간들을 함께 나누었다. 서로 다른 환경과 상황 속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선교적 삶의 이야기는 참석자 모두에게 깊은 감동과 새로운 도전이 되었다.

그동안 열방과 공동체를 향한 합창, ASME 스쿨, LAMS, 공청회 등 다양한 모임에서 만났던 펠로우들이었지만,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그러나 이번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서로의 삶 속에서 다채롭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 첫 모임은 단순한 만남을 넘어, 앞으로 함께 걸어갈 선교적 여정의 의미 있는 시작점이 되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되는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고 도전이 되는 진정한 교제의 장이 마련되었다.

현장에서 마주한 선교적 삶

이태원의 모처에서 우리는 두번째 모임을 갖게 되었다. 이곳은 난민과 이주민 가정, 특히 무슬림 이주 여성들의 일터이며, 아이들의 공부방이자 이태원 이주민들의 사랑방과 같은 공간이다. 우리는 현지의 맛이 살아 있는 아프가니스탄 음식을 함께 나누며, 사역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이론적 논의를 넘어 실제적인 선교적 삶의 현장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선교적 삶이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닌, 일상 속 작은 선행들의 집합이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함께 고민하며,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두더지의 여정이 앞으로도 더욱 의미 있게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모임을 마쳤다.

토다의 숲의 바베큐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자연스럽게 열게 하는 것은 자연 속에서 함께 나누는 식사가 아닐까?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의 어느 저녁, 용인시 고기리에 위치한 '토다의 숲'에서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 울창한 숲과 맑은 계곡이 어우러진 토다의 숲으로 퇴근하니, 이미 바비큐가 정성스럽게 차려 있었다. 맑은 공기와 맛있는 고기, 라면과 커피로 모두의 마음이 깊이 열려 우리는 어느 때보다 진솔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이날의 대화는 뜻깊은 결실을 맺었다. 펠로우와 선교사의 매칭을 해보기로 했다.

인터서브에는 다양한 영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과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가진 펠로우들이 있다. 같은 분야의 파트너와 펠로우가 만난다면 서로의 고충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토다의 숲에서의 이 저녁은 단순한 친목 모임을 넘어, 실제적인 협력의 시작점을 구성했다. 자연이 선물한 아름다운 공간에서, 우리의 비전은 더욱 선명해졌고 실천적인 계획으로 구체화되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만남이 계속되어, 서로에게 힘이 되고 도전이 되는 의미 있는 여정이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두더지가 간다!

펠로우와 선교사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만남은 무엇일까? 온라인으로 교제하면 시간과 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기존의 교제가 없던 사람들이 깊은 나눔을 나누기에는 마음의 장벽이 있을 수도 있다. 또한, 수많은 펠로우와 선교사를 어떻게 매칭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찾아가기로 했다.

어느 날 모임에서, 내가 선교지를 방문하겠다고 설문에 응답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언제 그런 응답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았지만, 이미 내가 동의했다고 하니 가야 할 것 같았다.

마침 새로운 사역을 준비 중이신 박종성, 장소현 선생님의 현장에 비즈니스 컨설팅이 가능한 펠로우들이 방문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구체화되었다. BAM 컨퍼런스의 주축이었던 노동완 선생님을 포함해 두더지가 간다 일본팀이 구성되었다.

출발 전 줌으로 현지와 사전 소통을 하며 준비하는 모임을 갖고 두더지가 간다는 일본으로 향했다.

2박 3일이라는 짧은 일정이었지만, 현장에서의 만남은 예상을 뛰어넘는 깊이와 풍성함을 선사했다. 일본의 시골 마을에서 가나, 네팔 등 다양한 국적의 이방인들을 섬기는 현지 교회와의 협력 사역을 목격하며 선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사역을 확장해 가는 두 선교사의 사역지를 방문하여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두 선교사님들은 자신의 일상과 사역 현장에서 우리를 기꺼이 환대해 주었고, 이를 통해 우리는 현장의 실제적인 필요와 고민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떻게 더 많은 도움을 주고 동역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새로운 선교적 동행의 시작

'두더지가 간다' 프로젝트는 단순한 현장 방문을 넘어, 선교사와 후원자라는 전통적 관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펠로우와 선교사의 동반자적 관계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각자의 전문성과 은사를 나누며 서로를 세워가는 이 선교적 동행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 하나님 나라를 향한 더 큰 걸음을 이루리라 믿는다.

▲ 두더지 모임에서 발제 중인 류정혜 펠로우

우리의 첫걸음은 작았지만, 그 안에서 발견한 가능성은 무한했다. 앞으로도 두더지는 Do The Good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진정한 동반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선교적 삶의 새로운 모델이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여정이다.

언제나 열려 있는 두더지 모임에 많은 펠로우들이 부담 없이 참여하여, 각자의 은사와 전문성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여정에 함께하기를 소망한다.

퇴임 인사

순종과 믿음의 여정, 그리고 새로운 시작

국제 대표직을 떠나며

비조이 코쉬 국제 대표

비조이 코쉬대표는 인도 출신의 의사로, 인터서브에 합류하기 전 13년 동안 인도에서 일반 개업의로 일했습니다. 1994년 인터서브 인도에 합류한 후, 1996년에 인도 대표로 임명되어 10년 동안 조직의 규모와 다양성을 확장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2006년에는 미주 및 북태평양 지역 디렉터로 임명되었으며, 2013년부터는 남아시아 지역을 담당했습니다. 이후 2015년 인터서브 국제 대표로 취임하여 2025년 3월까지 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국제 대표로 섬길 수 있었던 것은 큰 특권이었습니다. 10년간의 사역을 마무리하며,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음을 돌아봅니다. 많은 분들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깊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공동체 곳곳에 있습니다. 겸손하고 담대했던 시작, 주어진 가치를 지키려는 신실함, 세상의 흐름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순간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움을 겪었지만, 초교파적 정체성을 유지하며 모든 기관과 프로젝트를 현지에 이양했고, 선교적 사고방식을 붙들었

습니다. ZBMM에서 BMMF, 그리고 현재의 정체성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거치면서도 핵심 가치를 유지했습니다.

전환의 순간마다 미래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이 한 가지 방식에 갇히지 않으시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홀로 나아가지 못할 깊은 물속으로 발을 내딛도록 도전하십니다.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미래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삶의 모든 상황을 통제할 필요 없이,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학식이 없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과 길을 아는 것입니다.

제가 남기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아십시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부족함을 극복하려 하기보다, 그 부족한 상황을 하나님께 더욱 의지할 기회로 삼으십시오. 아시아와 아랍 세계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내 프레미와 저는 여러분의 사랑과 지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INTERSERVE

미션얼 Family

박영훈, 범민아 /서하, 서진, 서안

M국

Missional Family

인터서브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사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M국 사람들을 섬기게 된 박영훈, 범민아, 서하, 서진, 서안입니다. 아이들의 이름에는 모두 '천천히 걸을 서(徐)'라는 한자를 사용했습니다. 남들보다 빠르고 높은 곳을 향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여유롭게, 낮은 곳을 향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우리의 선교 여정에서도 이어가려 합니다. 양적 성장과 빠른 결과에 집착해 복음의 진보를 막았던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합니다. 현지인의 문화와 생각을 존중하며, 사랑과 배려로 복음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혼자였다면 막막하고 불안했겠지만, 인터서브 공동체와 함께하기에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든든한 본부 식구들,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팬아시아 선생님들, 그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선교에 동참하는 선생님들 덕분에 큰 힘을 얻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모양으로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 기도제목

- 선교지에서 개인 경건생활 리듬을 잘 확립하게 하소서.
- 현지 언어를 습득하는 지혜를 주소서.
- 자녀들이 건강히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모로서 아이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게 하소서.

카톡채널 : http://pf.kakao.com/_xbCfxbn

이야기

동북아 평화 사역

Missional Family

안녕하세요, '이야기'입니다. 저는 파송지가 될 태백에 미리 이사하여 적응 중입니다. 이사한 지 한 달이 되어가면서 이제야 길을 걷기가 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얼어붙은 인도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웠고, 꽝꽝 언 길을 보며 하나님께 냉담한 우리의 모습이 떠올라 눈물로 걷던 날도 있었습니다.

제가 태백으로 오게 된 것은, 한반도의 화해사역을 위해 브라질, 과테말라 등 전세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20대 초반의 젊은 선교사님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10년간 얼어붙었던 저의 마음을 회개의 눈물로 녹였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들에게 한글과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냉담한 한반도와 열방, 교회가 주님만을 열렬히 환영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태백 공동체를 잘 섬기겠습니다.

저는 소설을 전공하고 출판기획자, 편집자, 대필작가로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이후 훈련을 받고 2011년 동남아시아의 한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쳤으나, 암이 발견되어 10여 년간 선교지를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치유의 길을 걸으며 회복을 경험했고, 앞으로 아픈 사역자들을 돌보는 통합적 돌봄에도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 기도제목

-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하소서.
- 재정 펀드레이징이 되어 파송받을 때까지 전인적으로 잘 준비되게 하소서.
- 태백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어 회복과 화해의 삶을 살게 하소서.

카톡채널 : http://pf.kakao.com/_pxlfxbn

김보은

국내 PB 사역

Missional Family

PB에서 오랫동안 주재원 가족으로 평범하게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PB국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PB국 교회 전임사역자, S지역 외국인교회 화교부 부목사를 거쳐, 현재는 글로벌 코스메틱 브랜드 PB지부에서 일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역은 월~금요일 아침 예배, 토요일 '생명의 삶' 소그룹 모임, 그리고 '기독교 에센스' 12주 양육과정입니다. 특히 일대일로 진행되는 '기독교 에센스' 사역을 통해 일터에서 복음전도와 신앙 양육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PB의 45개 도시에 흩어져 있어 모든 모임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 사역의 목표는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각자의 일터가 복음 전도와 예배가 이루어지는 '밀알교회'로 세워지기를 꿈꿉니다.

늦깎이 선교사지만 인터서브에 허입이 돼서 무엇보다 여러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을 가까이에서 만나게 된 것이 감사하고, 저도 더 큰 동력을 얻게 되길 기대합니다.

▶ 기도제목

- 모든 온라인 집회와 양육과정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일터가 있는 모든 도시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더욱 흥왕하게 하소서.
- 비대면 사역이 갖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 1~2회의 순회 사역이 꼭 필요합니다. 이에 필요한 건강과 물질적 자원이 채워지게 하소서.

인터서브 스토리

또 한 번의 새로운 발걸음

주경배 선교사

저희는 작년 9월 한국을 떠났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보낸 후 새로운 사역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한국을 떠나면서 대대적인 짐 정리를 했습니다. 항공편으로 운반한 114kg의 짐을 남기고 나머지 짐은 대부분 정리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언젠가 주님 곁으로 갈 때는 빈손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남은 삶 동안 이 세

상의 것들을 더욱 비워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새로운 사역지로 나간다는 결정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새로운 사역지로 향하는 것은 무리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파송 교회에서도 처음에는 국내 사역을 권면하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의 마음에 품게 하신 중동 땅을 더 늦기 전에 섬겨야 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저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곳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서 6개월가량 지내며, 이전 베트남에서의 시간과 많은 차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파송 선교단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처음 교회 단독 파송으로 베트남에 갔습니다. 당시 교회 정책에 따른 결정이었고, 소속된 선교단체 없이 모든 일을 직접 부딪치며 배워야 했습니다. 적응은 쉽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번에 중동으로 파송될 때, 교회 정책이 변경되면서 선교단체 허입이 필요해

졌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그 마음이 교만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인터서브 소속으로 지내며 여러 선교사님과 교제하는 은혜와 축복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각기 다른 여러 나라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공유하는 인터서브의 향기 때문에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 향기는 바로 겸손의 향기입니다.

저희 부부가 '인터서브'라는 이름을 알게 된 지 채 1년 반이 되지 않았습니다. GMTC에서 경력 선교사 훈련을 받으며 선교단체를 물색하는 중, 인터서브 선교사님을 만나 '둘째 되기'라는 인터서브의 중요한 가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자기 조직과 시설을 만들기보다, 현지 교회와 현지인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 다른 단체와 연합하고 기꺼이 낮아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베트남에서 사역하는 동안 외국인의 공개적인 사역이 제한된 지역에서는 현지인 리더십을 세우고 섬길 때, 더욱 효과적인 사역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베트남에서 배운 것이 인터서브의 '둘째 되기' 가치와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인터서브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결국 인터서브 소속 선교사로 중동에 오게 되었습니다. 겸손의 정신이 살아있는 좋은 선교단체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경험하는 또 한 가지 큰 차이점은 재정적 부분입니다. 베트남에서는 처음부터 대학교에서 일하며, 특별한 필요 외에는 후원금을 의지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대학에서 제공하는 낡은 숙소에서 현지인들과 비슷한 급여를 받으며 지내는 것이 다소 불편했지만 그래도 큰 어려움 없이 지냈습니다. 또 현지인들을 그들 삶의 눈높이에서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뜻하지 않은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자비량 선교를 한다는 사실이 은연중에 자기 의로 작용했고, 처음부터 대학에서 전공 과목을 가르치며 대학 당국에 자신을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 속에서 언어를 제대로 습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이곳에서는 언어와 문화 적응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선교단체 정책 때문이기도 하고, 베트남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린 결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적응 기간에는 전적으로 후원에만 의지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는 9월 파송을 목표로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러 과정에서 많은 유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파송 교회 외 다양한 선교 동역자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특히 저희가 처

음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훈련을 받았던 대학생 선교단체 지체들과 만남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오랜 해외 생활로 관계가 소원해졌던 분들과 다시 연결되고, 하나님의 선교 비전을 나누는 과정에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맡겨진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만큼이나, 후방의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알리는 것도 선교사의 중요한 책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선교 사역의 다양한 형태를 발견하며, 저희가 감당하는 사역이 전체 하나님의 선교 가운데 얼마나 작은 부분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시 한번 겸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후원금 모금 과정을 통해 얻은 또 다른 유익은, 저희 사역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인터서브 허입 후 이곳으로 파송되기까지 6개월이 걸렸습니다. 이전까지 후원금을 모금하지 않았던 저희가 짧은 시간 안에 필요한 후원금을 확보한 것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또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필요를 채우시는 경험을 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약속과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지나치게 고민하기보다, 단순히 믿고 받아들이는 아브라함의 신뢰를 배우도록 저희를 인도하셨습니다.

>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 11:8)

저희는 베트남에서도 선교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큰 축복임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외국인이 현지인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선교활동을 할 수 없는 제약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아잉, 히엔, 후이와 같이 보석 같은 영혼들을 만나게 하셨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들 가운데 믿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작은 베트남 가정교회로 저희를 인도하셔서 개인적으로 돕던 영혼들이 그곳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코로나로 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대학 내 숙소에서 학생들과 소그룹 예배와 기도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고, 그 청년들이 베트남 교회의 리더로 성장하여 청년부 모임을 이

루게 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베트남에서의 시간이 이곳 중동으로 오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사역하는 동안 앞서가시며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주님, 소중한 만남을 예비하시고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인터서브를 통해 중동 땅을 밟는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런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곳에서도 귀한 영혼들과의 만남을 예비하시고 친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묵히 간증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무익한 종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INTERSERVE KOREA

마음을 잇다, 사랑을 나누다

인터서브 공동체 소식

인터서브 공동체의 소식을 전하는 새로운 코너가 시작되었습니다. 선교사, 펠로우, 본부의 소식을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이어가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로 함께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 새 국제 인터서브 대표

비조이 코쉬 대표의 10년간의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국제 공동 대표로 크리스 빈더와 린 피어슨이 선임되어 2025년 3월부터 대표 업무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인터서브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크리스 빈더 2004년부터 CAR 지역에서 사역하고, 국제 리더십 팀을 거쳐 직전까지 영국 본부의 대표로 사역했습니다.

린 피어슨은 1998년부터 CAR 지역에서 사역하였고, 2010~2021년까지 동아시아/남태평양 지역의 RD로 섬겼습니다.

?? / 신입 선교사 허입

2024년 12월 21일(토), 세 유닛(총 네 분)의 새로운 캔디데이트가 허입되었습니다. 이 네 분이 신입 선교사로써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 김보은 :
국내 CT팀, PB 온라인 사역
2) 이야기 :
NEAR 팀, 한국어 교육
3) 박영훈/범민아 : Pen Asia 팀

?? / 신입 선교사 파송

1) 박영훈/범민아 : 2월 10일, M국
2) 드보라 : 3월 11일, 이집트

?? / 펠로우 소식

새로운 펠로우가 인터서브 공동체에 합류했습니다. 인터서브 선교사와 한 몸을 이루며 함께 하나님 선교를 이루어나가길 기대합니다!

– 허창호 펠로우 : 의료인 (외과의사)
"선교사님들과 교제하면서 선교적 삶을 도전받고 선교사로서 준비되고 싶습니다."

?? / 부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1) 2024년 12월 11일, 이수 선교사 어머님, 성순자님
2) 2024년 12월 26일, 에스터 선교사 어머님, 석만순님
3) 2025년 1월 15일, 정승연 선교사 어머님, 최동숙님
4) 2025년 3월 7일, 송율 선교사 아버님, 송재순님
5) 2025년 3월 10일, 양소망 선교사 아버님, 양희성님

제19회 선교한국대회

MissionKorea

세상의 희망 예수

2025.08.04 MON
— 08.07 THU

주최 선교한국 2025 조직위원회

INCA(인터서브 생태행동) 팀

장소 사랑의교회 **후원** KWMA

01 신청안내

1차 등록	04.01 - 05.31
2차 등록	06.01 - 06.30
3차 등록	07.01 - 07.31

등록 링크

02 선교한국 2025 강사

고성준 목사	수원하나교회 담임목사
김선교 선교사	다윗의 열쇠 대표
문대원 목사	대구동신교회 담임목사
이길재 선교사	The story 대표
원유경 목사	포드처치 담임목사
주영광 선교사	WEC 사역 팀 리더

03 프로그램

선교부흥회
성경강해
Global Mission Trends
선택강의
선교단체 박람회
다이나믹 배움터
기도합주회

예배팀

ISAIAH 6ty one 아이자야씩스티원

팀룩워십

선교한국
홈페이지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롬 15:12

선교한국대회 HOT LINE

이메일 | 2025@missionkorea.org **전화** | 02-563-2468 **인스타** | missionkorea_mk

주소 | 04535 서울중앙우체국 사서함 768

선교한국대회 회원단체

인터서브 프렌즈

통권 155호
2025 Spring

우리는 누구 입니까?
인터서브는 1852년부터 아시아와 아랍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총체적 선교를 통해 복음을 증거해 온 글로벌 선교단체입니다.

비전
예수를 만나 변화된 삶과 공동체

목적 선언문
우리의 목적은 아시아와 아랍 세계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전 세계 교회들과의 파트너십과 총체적 선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 입니다.

핵심가치
1. 하나님을 의존함 2. 공동체 3.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4. 파트너십 5. 온전성 6. 총체적 7. 종 된 섬김

인터서브 계간지 2025년 봄호 통권 155호
발행인 공갈렙
편집인 이나래
발행일 2025. 3. 25.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 A-1206
전 화 031-778-7931 **팩스** 031-606-4773
이메일 interservekorea@gmail.com **홈페이지** interserve.kr
페이스북 페이지 facebook.com/interservekorea **인스타그램** @isv_kor

디자인 • 인쇄 피터폴 010-3373-3750

〈인터서브 프렌즈〉에 게재된 글과 사진과 그림은 무단 복제 할 수 없습니다

INTERSERVE KOREA

experience
Life As Mission

당신의 삶,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 A동-1206호 (금곡동 코오롱트리폴리스) 우)13616 Tel : 031-778-7931
Fax : 031-606-4773 Email : interservekorea@gmail.com H.P : interserve.kr FB : facebook.com/interservekorea